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호희품(好喜品) ②

食法戒成 탐법계성
至誠歡喜 지성지감
行身近道 행신근도
爲衆所愛 위중소애

오히려 법을 탐하고 계율 성취해
지극 정성으로 참회할 줄 알며
몸 가짐이 도에 가까우면
뜻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리

欲態不出 욕태불출
思正乃語 사정내어
心無貪愛 심무탐애
必截流渡 필절류도

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음미를 생각에 말을 다스려
마음에 탐욕 같애 없다고하면
예욕의 흐름 끊고 열반에 이르다

瞋人久行 비인구행
從遠去還 증원길환
親厚普安 친후보안
歸來喜歡 귀래희환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갈떠난 사람

“지극 정성으로 참회할 줄 알면 오히려 뜻 사람의 사랑을 받으리”

번길 좇아 무사히 돌아와서
친척과 벗들이 두루 편안하며
반갑고 기쁜 것과 같다

好行福者 호행복자
從此到彼 종차도피
自受福作 자수복조
如親來歸 여친래희

복된 선행 언제나 즐기던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간절할때에
스스로 지은 복 재가 받나니
어버이를 맞아 기쁜 것과 같다

起從聖教 기종성교
禁制不善 금제불선
近道見愛 근도견애
離道莫親 이도막친

거룩한 가르침을 좇아 일어나
선하지 않은일 금하여 억제하고
도에 다가감을 사랑하고
도를 떠난 이 가까이 말라

近與不近 근여불근
所住者異 소주자이
近道昇天 근도승천
不近墮獄 불근타옥

도에 다가감과 멀어지는 것
그가 머무는 곳 서로 다르니
도에 다가간 이 하늘에 오르고
멀어진 이 지옥에 떨어진다

분노품(忿怒品) ①

忿怒不見法 분노불견법
忿怒不知道 분노불지도
能除忿怒者 능제분노자
福壽常隨身 복희상수신

분노하면 바른 법 보지 못하고
분노하면 바른 도 알지 못한다
분노를 능히 버릴 수 있는 이
복덕과 기쁨이 언제나 뒤따른다

貪好不見法 탐음불견법
憂疑意亦然 우치의역연
除除去疑者 제음거치자
其福第一 尊 기복제일존

음욕을 탐하면 바른법 보지 못한다.
걱정망고 여러식은 마음도 그러하다
음욕과 이리석음 잘라 버린 이
그 복이 제일 존귀하다

慧能自製 예능자제
如止奔車 여지분거

음욕을 탐하면 바른법 보지 못한다.
걱정망고 여러식은 마음도 그러하다
음욕과 이리석음 잘라 버린 이
그 복이 제일 존귀하다

是爲善護 시위선어
棄冥入明 기명입명

성내는 마음 스스로 억제하길
내 달는 수레 멈추듯 하면
그는 바로 훌륭한 조어장부
어둠에서 벗어나 밝음에 들리라

忍辱勝能 인욕승능
善勝不善 선승불선
勝者能施 승자능시
至誠勝敵 지성승기

욕됨을 참아 성냄을 이기고
선한 행으로 악함을 이긴다
이기는 이 능히 베풀수 있고
지극한 정성은 거짓 속임을 이긴다

不欺不怒 불기불노
愈不多求 의불다구
如是三事 여시삼사
死則上天 사죽상천

속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마음으로 많은 것 욕심내지 않으니
이와같은 세가지를 일삼으면
죽어서 곧 천상에 오른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잘못의 근본뿌리 알고

도견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만나서 얘기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진면목 알 수 없듯
불법에 빠져보지 않고는
그 속에 담긴 우주의 진리 몰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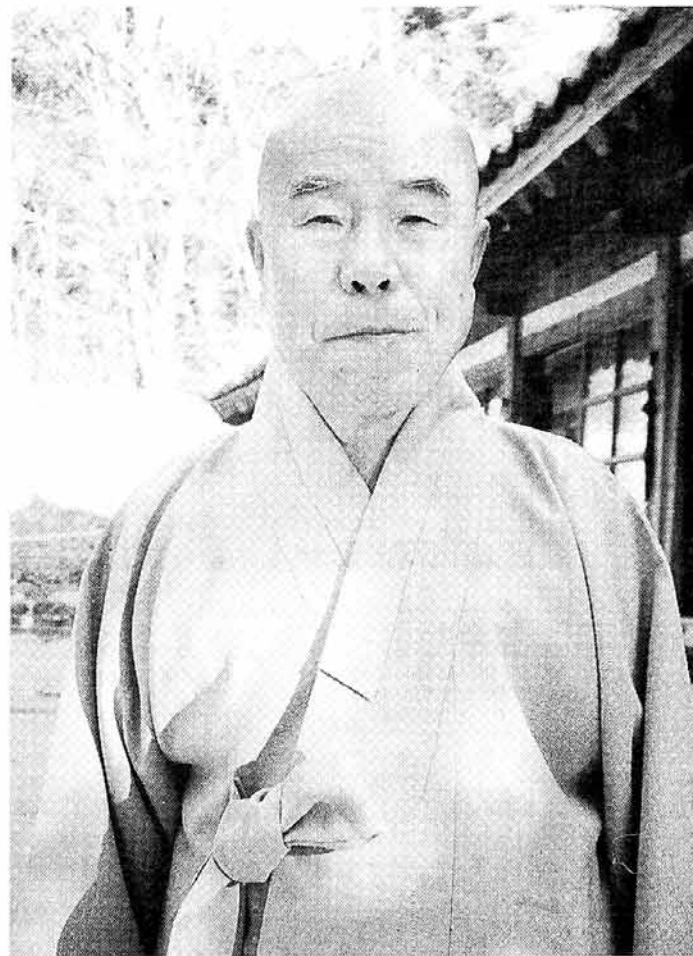
가끔씩 스님이 돈 것을 후회하지 않는
나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나
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고,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없
는데 무엇을 후회합니까”라고요. 만나서 얘
기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참진면목을
알 수 없듯이 불법에 빠져보지 않고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기 어
렵습니다.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 속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부처님 법은 바로 그 세상법칙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나는 56년간을 부
처님과 함께 해오면서 불법(佛法)이 얼
마나 훌륭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 법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하
나의 계율에 우주의 질서가 담겨져 있
는 이치입니다. 범부들은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기 어려운 것입니
다. 절에 뻥질나게 드나들며 떠나 독살한
신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일에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스님 말
씀도 진지하게 들읍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데 절 문만 나서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방탕한 생활을 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를 받고 불교신
도라고 말만하면 뉘뉘니까, 불법은 부처
님 말씀 그대로 계(戒)·정(定)·혜(慧)
삼학을 닦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공부처
입니다. 이중에서도 계를 철저히 수지하
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절에 다닌다고
모두가 다 신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불법을 따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불살생, 불음행, 불무도,
불망어 근본 4계를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
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승가에서도 계율을
현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
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율을 현
대사회에 맞게 고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인거죠. 물론 불
교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새로운 포교방법을
연구하고 불교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

력을 기울여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을 무시한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약에 부처님 계율이 바뀐다면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나와야만 가
능한 것입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의
근본인 계율을 가지고 이래야 한다는니
저래야 한다는니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
렵습니다. 계행을 지키지 않으면 불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사 깨침이 깊어
계율에 걸림이 없다고하더라도 계를 어겨서
는 안됩니다. 계율은 수행함에 있어 계율
과 잡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지처입니다. 불법은 계율의 기초위에

- 25년 강좌 호
44년 지월스님 은사로 득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역임
해인사, 대흥사 주지 역임
現 조계종 원로의원, 해인사 을
원 주석



정치인이나 국민들 모두
항하사 같은 마음자리 찾으면
반드시 살기좋은 나라 됩니다

세워진 것입니다.
나는 18세에 출가했습니다. 지금 생각
해보면 모두가 다 인연이지요. 불심 깊으
셨던 숙가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시고 꿈
꾸신 태몽을 자주 말씀해주셨어요. 고려
산 꼭대기에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시
고, 또 산 중턱에도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내 태몽이라고요. 내가 태어난
경이 강화군 화전면 부곡리 뒷산에 고려
산이라 불리는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
려산에는 고려시대의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장군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려산
에서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연꽃이 피었
답니다. 그런데 그 연꽃일중 하얀 잎과

붉은 잎, 청색 잎이 각각 동서남북 사방
으로 흩어지더군요. 그래서 연꽃이 떨
어진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일석같이 맞
게 백련사, 청련사, 적석사라 칭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중 하나인 백련사의 화주보
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안일처럼 백련
사일에도 열심히했습니다. 그 때문에 학
교가 끝나면 어머니를 따라 백련사엘 다
녔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따라다니긴 했
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무엇
인가 이끌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전생의 나는 스님이었음이 분명합
니다.
17살때 마침내 출가를 해야겠다는 발

심으로 지리산 영원사를 찾았습니다. 눈
이 하리까지 차올라 걷기조차 힘든 한겨
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일제치하에서
먹고 사는 것이 그야말로 화두였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래서인지 영원사에서는 받
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엄사
를 찾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낙방 끝에 칠불사를 찾았는데 칠불사
에서는 나를 정병기피자로 오인해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이 젊은 사람
들을 강제징집해가는 바람에 젊은 사람
들이 절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
님은 물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뜻밖
에 거기서 숙가 형님을 만나 집으로 다
시 끌려 왔습니다. 형님은 내가 출가하는
것을 극구만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출가해야겠다는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
었습니다. 오대산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그리고 동관암이란 곳에서 혼자 수행하
시는 스님을 만나 거기서 행자생활을 하
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은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지월스님이었습니다.

기름 읽기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현대불교신문 역음
신국문 345쪽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을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살하시고도
나는 한 미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을 말인 깨달이다.

기름 읽기 ②

삶은 썩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최원 역음
신국문 288쪽
값 6000원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빛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중)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읽기 ③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제일 지음
신국문 396쪽 / 값 8000원

뿐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편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기다가 산이 딱히
던 넘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筏)로 건너고 금강의 칼(金剛)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와 금강의 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주제이다.